

# 왜곡된 채식주의-페미니즘 이원론에 대항하는 “여성의 육식”

-영화 Raw 분석을 중심으로

임소연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 영화이론전공

목차

- 1 들어가며
- 2 왜곡된 채식주의-페미니즘 이원론
- 3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공포
- 4 영화 <RAW> 속 여성과 육식의 관계성
  - 4.1 가부장제이데올로기와 주변화 된 여성
  - 4.2 경계 짓기에 대한 저항과 해체: ‘여성의 육식’
- 5 나오며

인간은 생존을 위해 먹기도 하지만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경험과 문화를 공유한다. 하지만 “음식의 성정치”에서 고기는 남성의 지배 관점에서 여성을 소외시키고 주변화하면서 동물과 같이 대상화한다. 이에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동물에 대한 억압적 구조를 연결하여 지배 구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억압에 대항하고자 한다. 하지만 채식-여성, 육식-남성은 오히려 음식의 성정치의 이분법과 결합해 왜곡된 이원론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즉 필수적인 ‘식’생활이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생산해 낸 채식과 여성(유약함, 부드러움, 순응적 등)에 대한 왜곡된 담론이 강화되면서 채식과 여성의 비주류적 연대라는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채식과 페미니즘을 연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양한 근거와 이론적 자료가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채식을 하지 않거나, 육식을 하는 여성들은 소외되고 설명되지 못한다. 본고의 연구주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여성의 육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채식주의 주인공이 육식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 <RAW>를 통해 찾고자 한다. 채식주의자로서 소외된 존재에서 가부장제 질서 문화와 남성적 학교 구조에 대항하고자 할 수록 주인공은 육식에 눈을 뜨고 나아가 인육을 욕망한다. 영화는 육식과 여성은 반대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텍스트들을 해체함과 동시에 ‘여성의 육식’을 왜곡된 이원론이 만들어낸 표상으로서의 여성과 억압과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의 육식’을 의미화 할 수 있는 텍스트의 발견은 곧 음식과 성정치에 있어서 주류의 대항으로 비주류가 아닌 새로운 담론으로 “여성의 육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문핵심어: 채식주의-페미니즘, 여성의 육식, 영화 <RAW(로우)>, 여성 식인 괴물

## 1 들어가며

현대에 이르러 여성과 채식의 관계성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보다 활발히 거론되고 관심 받고 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채식주의-페미니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주의(feminism)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 반발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며 이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든 인간을 착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sup>1</sup>을 강조한다. 반면에 생태여성주의(eco feminism)는 위의 관점을 보다 확대하여 “환경에 대한 착취”로 연결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같은 지배 논리가 개입되어 있으므로”<sup>2</sup> 연관성이 있다는 관점이다. 생태여성주의 이론에 대표적인 학자 겸 이론가인 카렌 J. 워렌은 이 지배논리를 “가부장제 개념틀로 설명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 차이를 이용해서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며 이 원리를 여성의 종속 뿐 만 아니라 인종, 계급, 나이, 지역 등에 따른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지배의 논리가 이용”<sup>3</sup>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워렌은 “환경에 대한 착취”에서 “식물과 바위만을 언급”<sup>4</sup> 한다. 하지만 채식주의적 여성 생태주의 즉 본 논문에서 말하고자하는 채식주의-페미니즘은 “환경에 대한 착취”에서 동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연관성을 찾으며 이를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 진행하고자 한다.

채식주의-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억압과 자연의 착취를 관계시켜(여기서 자연은 동물을 포함한다.) 채식과 여성의 관계성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한 여성 저항’ 및 ‘주체적 자의식 추구’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

---

1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여성주의와 채식주의」,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여성철학회, 2011, 207쪽.

2 위의 논문, 209쪽.

3 위의 논문, 209쪽, 카렌 워렌의 여성생태주의에 대한 개념과 논의는 박언진, 「카렌 워렌의 에코페미니즘의 내용과 한계」, 『초등도덕교육』 제81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3, 225-257쪽 참조.

4 최훈, 앞의 논문, 210쪽.

다.<sup>5</sup> 즉 음식의 성정치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곡된 채식주의-페미니즘은 생존을 위한 먹는 행위, 필수불가결한 식생활에서 고기와 남성은 지배적 입장에 위치해 두고, 여성과 채식은 소외되고 주변적인 것으로 상정한다. 가부장제 담론에서 육식의 성정치는 대항의 의미가 왜곡된 채, 남성-육식, 여성-채식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 가부장제 지배 담론에 맞추어 여성과 채식을 유약함, 순종적 등의 키워드를 통해 타자화 시키는 왜곡된 이원론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본고는 페미니즘-채식주의가 전개하는 남성-육식, 여성-채식의 연결성과 대항, 동시에 가부장제 담론이 생성한 왜곡된 이원론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들 모두에게 언급되지 않고 있는 ‘육식하는 여성’ 즉 실제로 채식을 하지 않거나, 육식에 동의하는 여성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출발한다. 이들은 채식주의-페미니즘에서도 왜곡된 육식의 성정치에서도 모두 설명되지 못한다. 여성의 육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드러내고 있는 육식을 하는 여성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과 개인적 선호, 더욱 극단적으로는 남성적 지배 담론에 순응하는 여성들이라고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고는 캐럴 J. 애덤스의 『육식의 성정치』에서 언급되는 개념인 채식주의-페미니즘과 영화 <Raw>(2016) 속 여성 캐릭터를 분석함으로써 채식주의-페미니즘을 왜곡시키는 육식의 성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의 육식’을 통해 육식과 여성은 반대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텍스트들을 해체하고, 가부장제 담론에 대항하는 ‘여성의 육식’을 해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된 연구들은 영화 외에 시, 민담 설화, 소설과 같은 문학 속 남성과 육식을 묶어 설명하는 논문들이 다수이다. 정진경(2019)은 백석의 시에서 드러나는 음식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의 성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의 몸은 먹히는 존재 “생선 가시”에 비유된다. 즉 남성의 성적, 감각적 만족과 음식의 미각적 감각이 동일시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여성은 열등한 존재, 남성은 우월한 존재로 차별적인 성주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6</sup> 최원호

5 우경조·임향옥, 「젠더 번역관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2호, (사)아시아문학학술원, 2021, 443쪽.

6 정진경, 「시의 음식 모티브에 나타난 성정치성」, 『인문학연구』 제68집, 인문과학연구소, 2021.

(2018)는 한국 고전기록문학에서 드러나는 음식에 대한 혐오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분석하며 ‘음식’과 ‘여성’에 대한 혐오 반응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기식(2012)은 음식과 성을 연결하여 고기의 통제권을 곧 성의 통제권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사냥과 육식 분배가 여성 지배사회에서 남성 지배 사회로 넘어가는 신화적 역할 또는 권력을 상징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최훈(2011)은 여성주의와 생태주의를 연결시켜 채식주의와 여성주의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동물권, 윤리학 등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채식주의와 여성주의는 단순한 연대를 넘어서 억압에 대한 철폐를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종, 계급, 지역, 나이에 대한 모든 불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여성 생태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강의 <채식주의>가 등장한 이후, 채식주의의 속 캐릭터를 탐구해 여성과 채식주의-페미니즘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앞선 선행연구들의 채식주의-페미니즘이 전개하는 권력과 억압의 관계 속 소외된 여성과 동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이조차 가부장제 담론의 왜곡된 성정치로 여성을 비주류, 주변부로 놓이게 하는 문제에 ‘여성의 육식’을 제시하며 ‘여성 저항’, ‘주체적 자의식 추구’에 대한 새로운 의미화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왜곡된 채식주의-페미니즘의 이원론

캐럴 제이 애덤스(Carol J. Adams)는 『육식의 성정치』에서 ‘육식의 성정치’는 “여성을 동물화하고, 동물을 성애화 하고 여성화하는 태도이자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핵심은 육식과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다. “음식과 관련된 성정치는 고기의 주도권을 남성이 쟁취하면서 생겨났다.”<sup>8</sup>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피와 힘, 잔혹한 행위 등을 떠올리게 한다. ‘밀림의 왕사자’, ‘연약한 사슴’과 단어들은 동화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는

---

7 기식, 「음식문화와 남녀 불평등」, 『혜세연구』 제27권, 한국혜세학회, 2012.

8 정진경, 앞의 논문, 28쪽.

곧 육식이 “공격성 및 폭력성과 연관되어 지배, 권력과 같은 키워드를 생산”<sup>9</sup>하고 이러한 키워드들은 인간 사회 남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도축과 같은 직업은 남성적 직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즉 육식의 성정치론을 통해 생성된 키워드는 남성적 표상을 만들어 내고 가부장제 권력을 끊임없이 생성해낸다. 이러한 과정 속 여성의 역할은 자연스레 배제되고 소외된다. 캐럴 제이 아담스는 『육식의 성정치』 속 남성의 육식의 대한 다양한 예시를 든다.

우리는 어린 시절 줄곧 듣는 옛날 이야기에서 음식과 성역할의 상관관계를 처음 접한다. 왕은 집무실에서 스물네 마리의 티티새로 만든 파이를 먹고 왕비는 빵에 꿀을 발라 먹는다. … 고기가 남성의 특권이라는 점은 성서에도 나온다.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은 《여성의 시각에서 본 성경》에서 《성경》의 <레이기> 6장에 나오는 구절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사제들은 제단 앞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무와 숲을 이용해 매우 정성 들여 고기를 조리했다. 여자들은 그 음식을 맛볼 수 없었고, 모세의 형이자 유대교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아이들 중 사내아이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육식이 남성의 상징성에 대한 예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다양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은 특별한 날에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대개 남성들의 전유물이다. 아프리카 적도 문화권은 여자에게 닭고기 섭취를 금기하며 카메룬의 엠뎀크파우족의 경우 여성은 닭고기나 염소고기 자고새를 비롯한 그 밖의 잡을 수 있는 새 등을 먹지 않는다. 에티오피아의 쿠파족은 닭고기를 먹은 여자는 노예로 만든다. 반면 채소 또는 고기가 아닌 음식은 여성만 먹는 음식으로 여겨진다. … 수단, 누어족 남자들은 달걀을 먹는 행동을 사나이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sup>10</sup>

9 데버러 럽턴, 박형식 역, 『음식과 먹기의 사회학』, 한울, 2015, 207쪽 참조(위의 논문, 32쪽. 재인용).

10 위의 책, 81쪽 참조.

이렇게 육식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며, 여성들에게 육식을 제한함으로써 여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화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남성이 과거 원시 시대처럼 고기를 사냥하지 않음에도 즉 고기를 사냥하는 통제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기가 가지는 남성성과 남성 중심적 문화가 내려온 것이다. 단순히 고기가 남성성과 강인함을 내재화하여 여성을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 계급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유럽의 귀족 사회는 온갖 고기로 가득 찬 음식을 소비한 반면 노동자들은 합성 탄수화물을 소비했다.”<sup>11</sup> 그렇기에 사회에서 육식은 남성의 ‘힘’을 통한 정체성과 위계질서 즉 계급적 위치를 생성해낸다.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에서 핵심은 여기에 있다. 육식을 단순히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 즉 위계질서와 결합하여 힘과 권력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발견하고 동물을 착취해 육식을 하는 구조를 주체성에 대한 억압과 소외로 읽고 육식의 성정치에 대항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슴을 사냥하는 사자의 예를 다시 가져온다면, 육식의 성정치를 통해 사자를 보며 떠올린 키워드들 강인함, 무자비함, 힘, 동물의 왕과 같은 키워드들을 남성들이 육식을 하며 느낄 수 있는 감정들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그들은 적절하게 구워진 고기를 찢고, 흐르는 육즙과 고깃덩어리를 먹으며, 자신들의 남성성이 강화되고 근육이 커지며, 건강해짐을 느끼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여성은 ‘고기’처럼 남성성을 과시하고 발휘하는 대상이 되게 한다.

즉 먹혀지는 고기는 여성이라는 텍스트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 도축을 한다. 도축을 하는 과정은 살상이 동반된다. 오로지 육식을 위해서 길러지고 사육된다는 것은 지배적인 폭력이며, 인간중심적이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 아래에 여성의 이미지를 성적으로 상품화 되며, 남성의 시각과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과 보이지 않는 억압이 맥락을 같이 한다. 육식의 성 정치에 의해, 여성을 동물화하거나 동물을 여성화하며, “육식으로 인해 형성된 이데올로기는 남성문화와 연계되어”<sup>12</sup> 여성의 물신화와 동물의 살상을 합리

---

11 위의 책, 78쪽.

12 정진경, 앞의 논문, 34쪽.

화 한다. “음식에 의해 형성된 성적 실체-존재로 여성의 억압을 은유하고 고기를 통제, 관리하는 주체인 남성이, 그들에 의해 통제 당하는 여성을 비주체로 규정하는 것이다.”<sup>13</sup>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이 주변화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육식 사회에서 채식 또한 주변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채식과 여성을 묶어 왜곡된 담론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육식이 강인함과 지배적인 상징인 만큼 채식은 수동적이고, 연약함 등의 반대의 키워드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채식과 여성을 연결하여 잘못된 이원론을 만들어 내면서, 채소가 가지는 잘못된 상징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수단의 누어족의 남성들은 달걀을 먹는 행위가 남성답지 못하다고 비난 받는 것이다. 캐럴 제이 애덤스는 『육식의 성정치』에서 가부장제 지배 담론이 만들어낸 채소와 여성의 잘못된 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었다.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와 공화당의 조시 부시 후보가 맞붙은 1988년 미국 대선을 예로 들어보자.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은 채소를 빗대어 서로 비하했는데, 채소를 향한 가부장제적 경멸을 그대로 보여 준다. 듀카키스는 ‘채소 음식처럼 밋밋한 후보’로 불렸다. 홍보물 제작 업체 노던 선머천다이징은 ‘조시 부시, 채소인가 독초인가?’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sup>14</sup>

이렇듯 지배 담론이 만들어낸 채식-수동적-여성이라는 프레임은 대항이 아닌 여성과 채식을 소외시키고 육식과 가부장적 구조를 더욱 강화시킨다. 채식은 인간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거나, 채식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담론들이다. 육식을 거부하거나, 동물에 대한 지배적 명령에 대해 “철페를 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감상적인 사람, 반항적이다, 더욱 확대해서는 여자 같은 짓<sup>15</sup>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은 도리어 “채식주의자가 여성

---

13 위의 논문, 34쪽.

14 캐럴 제이 애덤스, 앞의 책, 96쪽.

15 위의 책, 164쪽.



에게 부과된 과제로 여겨지고 여성이 직면한 현 상태와 동일시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이상할 구석이 없다”<sup>16</sup>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언급되지 못한 채식주의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나’(주체), 채식을 하는 남성으로서 ‘나’(주체)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낳게 된다. 채식주의-페미니즘은 지배와 권력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작용하는 동물의 억압과 여성의 억압,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명명에 대한 저항임과 동시에 나와 다른 어떤 존재, 누군가에게도 권리는 존재하며, 그것이 무시당하거나 비난 받아서는 안 되는 확장된 흐름으로 봐야 한다.<sup>17</sup> 이러한 확장된 관점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채식주의와 페미니즘 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한 개념적 대조는 오히려 성적 차이에 대한 표상을 역으로 강조하고 인식되게 한다. 결국 남성과 육식에 고정하여 음식 문화와 성정치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과 채식은 ‘비주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채식주의-페미니즘은 채식과 여성 즉 단순한 단어적인 ‘비주류’의 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부장제 담론에서 제기하는 육식과 채식, 여성과 남성의 이원론에 대항함과 동시에 이를 해체하여 전복시키고 ‘비주류’에서 벗어나 스스로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과도하게 이원론을 강조하기 보다 전복과 해체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화 <Raw>는 여성의 육식이 가부장제 식문화에 대항하면서도 스스로 채식과 육식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영화적 텍스트이다.

### 3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공포

“여성의 육식”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는 음식의 성정치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원론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자의식 추구’로 읽기 위해, 크리스테바의 개념을 가져오고자 한다. 크리스테바는 아브젝트(Abject)와 아브젝시옹(Abjection)의 개념을 주체 형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다. “아브젝트는 경계를 맴도는 어

---

16 위의 책, 165쪽.

17 쇼히니 초두리, 노지승 역, 『페미니즘 영화이론』, 앨피, 2014, 124쪽 참조.

떤 것 또는 주체도 대상도 아닌 무엇이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기 위해 배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체도 객체도 아닌, 주체와 객체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것”<sup>18</sup>이다. 아브젝트는 “부적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sup>19</sup>시키는 것에 가까우며 언제든지 돌아와 주체를 위협한다. 아브젝시옹은 “아브젝트를 거부하고 추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과정에서 타자와의 경계를 만들어낸다. 즉 자신의 일부를 타자로 만들며 주체는 탄생하게 된다.”<sup>20</sup>

크리스테바의 경우 이러한 아브젝트를 여성의 육체, 어머니와 연결하였다. 그렇기에 모성애가 결핍된 여성의 이미지에 대해 ‘여성 괴물’을 그리는 영화, 문학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 여성 괴물의 ‘공포’를 설명한다. 가령 영화 <브루드>의 ‘노라’는 태반에서 나오는 자신의 태아를 잡아먹을 듯 핏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모성애가 결여된 ‘어머니’ 즉 어머니는 아이의 보호자라는 표상을 깨트리고 아이를 잡아먹는 행위가 비이성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낳은 태반을 표현하기 위한 끈적한 점액, 태반을 낳는 모습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방해물이 된다. 사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공포적 이미지는 프로이트 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거세당한 남성’으로 상정하였다. 거세당한(남성으로서)여성은 곧 남성들로 하여금 거세를 당할 것만 같은 위협에 사로잡히게 한다. 바기나 텐타라의 ‘이빨달린 질’은 그러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신화이다. 바바라 크리드는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거세하는 여성’을 통해 여성 괴물을 적극적인 캐릭터로 접근하였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슬래셔 영화 속 여성 주인공들은 “거세 공포”와 “남근적 여성”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생물학적 성 차이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이미지 읽기를 거부하고자 한다. 테레사 드 로레티스(Teresa de Lauretis)

18 김영란, 「문정희 시에 나타난 주체의 양상 연구: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 개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2쪽-23쪽.

19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5쪽.

20 김도아·김진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아브젝트 아트에 나타난 타자성」, 『횡단인문학』 제9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125쪽.

성적 차이를 통한 페미니스트 이론은 오히려 “가부장적 사회와 그 담론들 속에 이미 끼워져 있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적 대조 속에서 페미니스트의 사고를 가두는 것”<sup>21</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성적 차이를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를 기반 한 설명으로 ‘주체적 자의식 추구’의 과정으로서 ‘여성의 육식’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크리스테바의 모성적 기능 또는 여성에 대한 육체보다는 ‘경계’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것이다. 이 ‘경계’는 필자에게 곧 주체적 자의식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장場이 될 수 있다. 주체도 객체도 아닌 경계선 위에 있는 아브젝트를 거부하고 타자와의 경계를 만들어내는 아브젝시옹에서 우리는 가부장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담론에서 주체도, 객체도 아닌 ‘어중간하고 모호한’ 여성의 ‘육식’에 대해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나’와 ‘타자’에 대한 대립을 흔들 수 있는 아브젝트로서 ‘여성의 육식’은 육식의 성정치의 전유물로서 여성과 결합된 경우, 지배 담론에 대한 큰 위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배 담론이 만들어 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식생활, 음식 문화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를 통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성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경계 안에 편입 되지 않은 ‘여성의 육식’을 통해 지배 담론이 생산한 경계를 해체하고 가로지르는 ‘공포’가 생성된다. 곧 지배 이데올로기가 전복되고 해체 될 수 있음에 대한 암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뒤엎는다.’라는 개념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호명’되지 못한 ‘육식’과 ‘여성’의 결합과 의미를 채식-여성, 남성-육식이라는 이분법 사이 틈으로 끼어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의 육식”은 이전의 모성애가 결핍되거나 성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거세적 공포에의 ‘여성 괴물’에서 벗어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4 영화 〈RAW〉 속 여성과 육식의 관계성

줄리아 듀코나우 감독의 영화 〈Raw〉는 2017년 개봉하였다. 채식주의자인 주인

---

21 쇼히니 초두리, 앞의 책, 124쪽.

공이 육식을 하고 나아가 인육을 욕망하는 식인으로 이르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채식주의자 집안에서 자란 주인공 저스틴은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군기 문화와 폭력적인 선배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채식주의 하는 그녀는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수의학과의 현실이 동물을 그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현실에 혼란스럽다. 영화는 채식주의자인 저스틴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학교 문화에 적응할수록 육식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sup>22</sup>

우선적으로 이 영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육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채식주의 하던 여성이 육식을 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기존에 영화들은 채식주의 하는 여성 또는 남성의 육식과 식인을 그린 작품들이 대다수였다. 박철수 감독의 영화 <301, 302>는 요리를 좋아하는 여성과 식육부진의 여성의 관계와 그녀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이유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애정 같구, 어린 시절 정육점에서의 성폭행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악셀 코르티에르(Axel Courtiere) 감독의 <맛있는 그대> 또한 채식주의를 하는 여성에게 인육을 즐기는 남성이 첫 눈에 반해 그녀의 사랑을 얻고자 노력한다. 위 언급한 영화들은 남성과 육식, 여성과 채식주의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이 담겨져 있으며 남성의 육식 즉 육식의 성정치를 내포하거나 담겨져 있다. 하지만 영화 <Raw>는 기존의 채식주의-페미니즘이 비판하고 있는 육식의 성정치와 나아가 채식주의자 여성이 육식을 하고 인육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는 채식주의-페미니즘과 육식의 성 정치에 역행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본장에서는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하며, 육식과 여성의 관계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22 영화 <Raw>는 24회 제라르메 국제판타스틱영화제(최우수상, 비평가상), 43회 겐트 영화제(익스플로러상), 49회 시체스영화제(Carnet Jove 심사위원상, 멜리스-유럽최우수작품상, 시인 케인상-주목 받는 감독), 60회 런던 국제 영화제(서덜랜드상)을 수상하였다. 줄리아 듀코나우(Julia Ducournau)는 그녀의 첫 데뷔작인 <Junior>(2011)부터 <Raw>(2017), <Titane>(2021), 총 세 작품 모두, 여성의 신체, 식인, 여성 범죄 같은 비슷한 주제로 영화를 만들었으며, 감독으로서 그녀의 관심사가 여성의 욕망을 신체, 또는 금기를 깨트리는 살인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4.1 가부장제이데올로기와 주변화 된 여성

이 영화는 이야기가 진행 되는 곳곳에 다양한 가부장제-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영화는 끊임없이 잘못된 위계질서를 드러낸다. 선배와 신입생, 남자와 여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인간과 동물과 같은 구분론에서 남성, 이성애자, 인간은 우위에 있으며 여성, 동성애자, 동물은 주변부에 위치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에 대해 상기 시켜준다. 특히 위계질서에서 우위에 있는 ‘남성’들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과 환경을 통해 주변화 된 여성과 동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자 한다. 영화 속 주인공은 여성이자 채식주의자, 신입생으로서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남성중심의 문화가 내재하는 학교에서 약자, 즉 소외자로 위치된다.

이는 영화 전반부에서 잘 드러난다. 신입생에게 토끼의 생간을 먹게 하는 신고식은 채식주의자인 주인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겁쟁이’가 되는 것이다. 또한 난잡한 신입생 파티에서 신입생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네발로 기는 장면은 신입생과 선배라는 또 다른 권력의 구조 속에 굴복하며 그들의 기는 행위는 동물처럼 보인다. 인간이 육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동물들이 소비되고 육식을 하는 남성의 권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그녀의 룸메이트는 게이 즉 동성애자이지만 여성인 주인공과 같은 방을 배정받으며 “여자와 호모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이야기 하며 이성애자 중심의 학교에서 동성애자는 여성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을 통해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채식주의자 주인공과 동성애자인 그녀의 룸메이트는 불완전하게 존재할 뿐이다.

여성의 성애화 또는 선배/신입생, 남자와 여자 동물/인간 간의 이분법적 위계질서는 영화 속에서 학교 질서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준다. 신고식 첫 날, 선배들은 신입생들을 파티에 넣어놓고 술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둔다. 가벼운 차림으로 춤을 추는 여자 신입생들을 촬영하며 “여자들이여, 너네들을 보여줘”라는 말에 그녀들은 가슴을 보여주며 파티를 즐긴다. 여기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즐기는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이 장면은 남성 캐릭터의 보이스 오버와 함께 여성의 신체가 노출됨으로 남성적 시각에서 이미지화 된 ‘성을 즐기는 여성의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자들은 섹시하게 입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 드레

스를 입지 않은 주인공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기저귀를 채우는 선배의 행위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드러나는 선배들의 강요와 성적 묘사를 통한 여성 이미지에 대한 요구이며 폭력과 대상화되는 존재로 여성을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안에 편입시키려 강제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동물은 ‘수의학과’라는 주인공의 전공을 통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주인공은 동물을 치료하고 동물권을 보장하고 자애롭게 보살피는 수의사를 상상하며 진학했지만, 그녀가 본 현실은 달랐다. 학교와 학생들은 동물을 그저 도구적 존재, 대상으로 바라본다. 철 기구들에 매달려 혀를 내밀고 옮겨지는 말,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묶여 있는 채로 소형 카메라로 소의 자궁을 들여다보는 모습, 쇠사슬을 달아 강제적으로 머신을 뛰어야 하는 말 등은, 오히려 비인간적, 기계적이고 착취적인 느낌이 든다. 이는 동물이 그들에게 있어서 공부를 위한 해부학적 대상이듯이, 신입생 파티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가슴과 섹슈얼리티를 표출하며 남성들과 문란하게 놀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여성과 동물이 남성적 학교 문화에 대상이 됨을 드러낸다.

주인공은 자신이 선택한 ‘수의학과’의 현실과 인정받지 못하는 채식주의자로서 존재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수록 선배의 괴롭힘, 시험 낙방 등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녀가 고난과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응해야만 했는가? 이는 부모님이 요구하는 순응적이고 모범적인 딸을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채식을 하는 주인공과 채식을 거부하는 그녀의 언니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와 언니의 성격을 비교하면 더욱이 두드러진다. 주인공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며, 부모님의 말씀 또한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드린다. 말 그대로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다. 학교에 적응하고 모범생인 딸을 원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 자신을 억압하는 학교 질서의 요구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주인공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존재, 위치를 위협받게 된다. 이 혼란의 결과는 곧 순응적인 딸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부조리한 학교 질서에 편입되려 할수록 오염물과 식인에 가까워진다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점수를 위해 친구를 고발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드러난다. 부정 시험에 대한 교수의 압박 질문에 불안해하는 주인공은 면담이 끝난 후, 면담 때 마음을 달래려 씹었던 머리카락들이 헛구역질과 함께 줄줄이 연결되어 나오는 장면은 그녀가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교수의 압박이라는 것으로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이다. 이 오염물은 “부모나 타자의 욕망, 즉 원치 않은 욕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서 내 속에서 몰아내고 침 뱉고 버리는 하찮고 무의미하지만, 그들이 바라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게 부과한 사소한 것”<sup>23</sup>이며 이 행위를 통해 주인공은 “대가를 치르며 맹렬한 오염과 더불어 자아를 낳게 된다.” 즉 그녀는 타인(부모님과 학교질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원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 작은 위반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머리카락이라는 오염물을 뱉어내는 것으로 대가를 치른다.

머리카락 배출이라는 오염물을 통해 대가를 치른 그녀는 거짓말이라는 작은 위반에서 육식, 나아가 식인이라는 행위를 통해 학교의 폭력구조와 부모님의 요구 및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주체를 확립시키기 금기된 행동들을 시작한다. 그녀의 캐릭터는 언니 캐릭터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녀의 언니는 육식을 즐기며 개방적인 성 생활과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동생의 육식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미없는’, ‘유별난’으로 비난한다. 이 비난은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받아드리는 것임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구조(동물을 대하는 태도, 육식을 하는 학생들, 선배들의 권력 등)이다. 이 구조 속에서 주인공은 구분된 경계에 자신을 맞추고자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위협받는 채식주의자 여성으로서 아브젝트를 쫓아내고자 시도한다.

중요한 것은 채식주의자로서 소외된 존재 또는 지배적 학교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순간, 주인공의 육식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그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는 위협받게 된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로서 그녀가 부정당하는 것이

23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23쪽.



며, 섹시한 원피스를 입고 남성들과 키스를 하고, 비키니 욕망을 하는 것이다. 학교라는 폭력적 지배 질서 안으로 편입된다면, 그녀는 곧 ‘대상’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주인공은 ‘대상’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즉 욕망을 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행동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한다. 그녀의 언니처럼 무비판적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며 고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녀의 욕망은 타인에 대한 규정과 나를 찾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혼란과 충돌,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일종의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저항 즉 그녀의 욕망은 영화 후반부에 이르면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채식주의자인 그녀의 욕망을 룸메이트는 이상하게 보고, 성적 행위를 과격하게 하는 주인공에게 남성들은 겁먹는다. 그녀는 아이러니하게 또 다시 소외된다. 그것은 그녀의 욕망이 지배 질서의 편입으로서 대상이 아닌 억압하던 지배 구조를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트리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 4.2 경계 짓기에 대한 저항과 해체: ‘여성의 욕망’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성과 욕망은 이제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녀의 금기, 원칙 즉 욕망과 성적 쾌락은 무섭거나 낯설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다. 그녀가 학교를 다니는 한 적응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채식주의와 여성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의 욕망은 시작된다. 처음 욕망을 시도하는 것은 쿠키를 훔치는 불법적인 행위에서 시작된다. 이를 시작으로 욕망에 대한 욕구는 생식, 즉 생고기를 먹고자 하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 순간 그녀 자체에도 변화가 생긴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난잡한 술자리를 즐기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가 스스로 변화를 받아드리고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위반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욕망을 즐기게 된다. 이를 잘못 해석한다면 그녀가 학교 구조에 순응하고 받아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순응은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식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언니의 권유로 주인공은 왁싱을 하게 되고 언니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사고로 인해 그녀의 왁싱은 중단된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맞보고자 하는 강렬한 유혹과 욕망에 사로 잡혀 손가락을 먹는 식인의 행위를 하게 된다. “여자의 털은 아름답지 못하며, 가꾸어야한다.”는 언니의 말과 함께 시도한 왁싱이 실패로 끝나면서 주인공의 인육에 대한 첫 욕망과 연결된다는 점은 인육을 향한 그녀의 욕망이 단순한 호기심, 미각적 욕망이나 구조적 순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화 속 다양한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주인공은 극 초반 입기 싫다고 저항하던 드레스를 입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외설적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음악은 그녀의 성적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부추기는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품위 있는 창녀가 돼  
 품위 있는 창녀가 돼  
 위에 올라타  
 환각제 페로몬 박자도 맞춰주고,  
 하나 둘 셋 넷  
 잘해줄게,  
 뼈 속까지 다 빨아먹어 줄게 예쁜 시체가 되게 내 안에 빠져 죽을 걸<sup>24</sup>

여성의 외적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남성을 홀리는 요부와 창녀와 같은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적 시각에 의해 소비되는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이며, 여성의 물신화를 주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순히 물신화 되고 남성적 시각의 여성화가 아닌 더욱 적극적이고 광적으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며 이러한 욕구가 강해질수록 인육을 욕망한다. 하지만 성을 욕망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극 초반, 가슴과 엉덩이를 보여주고 남자 선배에게 사진을 찍히며 즐기는 여성과 달리해 공포스럽고, 기괴스럽게 그려진다.

24 영화 <Raw> 속 대사.

그 절정은 페인트를 뒤집어씌우고 다른 남성과 한 방에 강제적으로 갇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선배에게 저항하지 않고 주인공은 남성과 키스를 하다 남성의 입술을 물어뜯는 장면을 통해 극대화된다. 이후 학교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이상’하고 ‘잔인’하고 ‘기이’하게 보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식인적 행위가 괴물로 그려지는 것은 이전의 여성 괴물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바라 크리드(Barbara Creed)는 자신의 저서 『여성 괴물』에서 거세된 남근으로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여성의 신체를 통해 여성 괴물과 이를 표현한 영화를 예시로 들고 있다. 이는 위협적인 여성의 성기 또는 모성애가 결여된 어머니 등과 같은 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아이를 먹는 식인의 행위를 하거나 인간을 위협한다. 하지만 영화 <RAW> 속 주인공은 여성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모성애’ 또는 거세된 남근으로서 여성이라는 타자화 된 관점에서 벗어난다. 즉 그녀의 식인은 학교 구조에서 강요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이상적 행위로서 발현된다. 그 절정은 룸메이트와의 성관계에서 나타난다.

주인공과 룸메이트가 성적 관계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그녀는 가학적이고 남성을 물어뜯으려는 듯 덮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마치 남성이 잡아먹히는 듯한 구도와 자세를 통해 룸메이트가 위협을 느끼고 그의 제지에 결국 그녀는 스스로의 손목을 물어뜯으며 자신을 멈춘다. 이 순간 그녀의 모습은 완벽하게 식인 괴물로 탄생하게 된다. 식인과 육식이 발현되는 것이 지배 구조가 요구하는 행동과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녀의 식인과 육식은 순응보다는 저항의 모습에 더 가깝다.

주목할 것은 그녀는 스스로의 식인의 욕망을 손목을 물어뜯으면서 제어한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비이성적이고 오염되고 비체로서의 여성 괴물이 아닌, 주체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식인 괴물이다. 차희정은 자신의 논문 「메두사의 후예들: 영미여성 문학텍스트의 여자 괴물 되기」에서 여성 괴물은 억압되고 은폐되는 주변과 타자가 아닌 말하는 주체로서의 저항적 자아 형성의 시발점이며 남성 중심의 지배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즉 주인공의 식인은 그녀를 억압하던 지배 구조-착하고 순종적인 딸의 모습, 폭력적인 학교 문화에서의 소외, 존중받지 못한 동물권에 대한 최후의 ‘말하기’ 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녀를 단순히 ‘괴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구조와 담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에서 시작되는 그녀의 식인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기에 위협적이지 않다. 그녀가 룸메이트와의 성행위를 중단한 것은 룸메이트에 대한 죄책감과 그를 헤치면 안 된다는 이성적 판단과 함께 자신의 팔을 대신 물어뜯는 행위로 대체된다. 이는 역겨운 괴물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녀의 식인이 절제 가능한, 이성에 의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육식의 성정치 즉 남성 중심적 지배 이데올로기 영화에서는 주인공에게 강요된 성애화 된 여성과 채식주의자로서의 억압, 선배들의 부조리한 폭력에 맞선 주체적인 행위이다. 그녀는 육식의 ‘대상’이 아닌 통제 가능한 육식의 ‘주체’가 되었다.

이는 그녀와 그녀의 언니 알렉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 알렉스, 모두 식인을 하게 되지만 주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저항으로서의 주인공의 식인과 대비되게 언니는 자신의 자유가 아닌 폭력적 구조에 적응하고, 인정하며 동화되면서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식인을 행했다. 차도로 뛰쳐나가 일부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물어뜯는 그녀의 언니는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이는 자기중심적 식인에 해당하며 동물권을 배제하는 인간중심적 육식과 동일시 할 수 있다. 이미 알렉스는 동생이 오기 전, 학교의 폭력적 구조에 적응하고 동화되면서 구조적 폭력에 의문을 품지 않았기에 그녀의 식인과 언니의 식인은 명백히 다르다. 알렉스의 식인은 남성적 지배 담론을 의문시하지 않고, 무비판적인 편입에서 온 쾌락에 의한 것이기에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영화의 결말은 여성의 육식에 대해 다양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장면이다. 그녀의 아버지 얼굴이 클로즈업 되며 보이는 인종의 상처와 후에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셔츠를 벗으며 드러나는 상처는 곧 어머니 또한 식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어머니의 식인 행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말은 끊임없이 내려오며 여전히 존재하는 육식의 성정치—남성과 고기의 권력, 남성성과 육식의 관계, 힘과 육식의 잘못된 통념—의 잘못된 지배 담론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논자는 해석한다. 즉 어쩌면 고기를 사냥하던 원시 부족을 통해 고기의 통제권을 이야기하며 육식을 남성의 전유물로 상정하는 것, 남성과 힘의 관계, 권력 구조를 어머니의 식인이 주인공에게도 유전된 것이며, 모계 혈통으로 유지되고 대물림되는 것으로 암시하면서, 고기 통제권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 또한 식인 행위를 조절하기 위해 채식주의 하는 어머니를 위해 함께 채식주의 하는

아버지는 육식/남성, 여성/채식과 같은 이분법을 통한 지배 관계가 해체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화 속 ‘여성의 육식’ 나아가 식인은 단순한 미적 체험이나 비이성적 ‘식인 괴물’이 아니다. 남성적 구조와 질서가 만들어낸 담론에 대한 주체적 저항이라는 텍스트로 재의미화 할 수 있다. 모든 폭력과 억압 구조 속에서 채식과 여성의 결합과 연대는 가부장제 지배 담론을 밝히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저항이 이분법을 해체 시킨 후 여성과 채식, 남성과 육식을 다른 맥락에서 읽고자 하는 시도는 ‘주류에 대한 대립되는 비주류의 대항’이 아닌 ‘전복과 해체를 통한 대항’으로 재의미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영화는 “여성의 육식”을 통해 채식주의-페미니즘의 새로운 텍스트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 5 나오며

본고는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영화 텍스트를 분석해 여성의 육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음식의 성정치에서 고기는 여성에게 제한적이며 금기시 되었다. 이는 힘의 논리와 여성 억압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고기와 남성성의 연관성과 고기를 도축,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위치를 무력화 시키고, 기능을 약화 시켰다. 그렇다면 여성의 육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성의 육식은 단순한 개인적 경험과 미적 체험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 인간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그 권리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음식 문화, 육식, 채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성차를 적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채식주의-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의 육식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다만 채식과 여성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담론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관계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그 연결성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해 나가하고자하는 방법론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방법론에서는 설명되지 못한 ‘여성의 육식’을 영화 텍스트를 통해 나름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육식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순응이나 지배 담론의 모방이 아니다. 오

히려 가부장제 담론이 제한한 남성들의 전유물인 육식과 힘, 권력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 즉 지배 담론을 전복시키는 역할로 제시되어 질 수 있다. 이 전복은 가부장제 담론에서는 위협이다. 그렇기에 주인공의 육식, 나아가 식인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여성이 육식을 사유한 대가이며, 육식의 성 정치에 위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식을 통해 ‘괴물 같은’ 주인공의 변화된 모습은 남성적 음식 문화에 대한 분노이며 비이성적 존재가 아닌 식인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적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채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 할 것 없이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부당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단순한 이원론적인 구분에 집중된 연구는 채식과 여성을 묶어 고정시켜버리고 왜곡된 담론에 쉽게 휩쓸려가게 하는 잘못된 이분법을 낳을 수 있다. 채식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가부장적 구조와 폭력적 구조를 설명하고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소외된 대상들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필자 또한 동의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영화와 여성의 육식은 채식주의 텍스트가 육식의 성 정치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의 예시라고 생각한다. 즉 여성의 육식 또한 남성의 육식에 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채식주의-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과 같은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의 육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리적 접근과 연결성을 요하는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한국의 음식 문화와 성정치의 연관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는 채식주의 담론과 더불어 육식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의와 다양한 문학, 미디어 등의 텍스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추가적인 후속 연구와 여성의 육식과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박철수 영화 <301, 302>(1995)

악셀 코르티에르(Axel Courtiere) 영화 <맛있는 그대>(2017)

줄리아 듀코나우(Julia Ducournau) 영화 <RAW>(2017)

### 단행본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 괴물』, 여이연, 2008.

쇼히니 초두리, 노지승 역, 『페미니즘 영화이론』, 엘피, 2014.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캐럴 제이 애덤스, 류현 역, 『육식의 성정치』, 이매진, 2020.

### 논문

김도아·김진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아브젝트 아트에 나타난 타자성」, 『횡단 인문학』 제9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121-146쪽.

박언진, 「카렌 워렌의 에코페미니즘의 내용과 한계」, 『초등도덕교육』 제81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3, 225-257쪽.

우경조·임향옥, 「젠더 번역관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 분석: 여성 인물 재현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권 제2호, (사)아시아문학학술원, 2021, 439-454쪽.

이기식, 「음식문화와 남녀 불평등」, 『혜세연구』 제27권, 한국혜세학회, 2012, 221-243쪽.

정진경, 「시의 음식 모티브에 나타난 성정치성」, 『인문과학연구』 제68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27-52쪽.

차희정, 「메두사의 후예들: 영미여성 문학텍스트의 여자 괴물 되기」, 『인문학연구』 제41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95-218쪽.

최원오, 「구비설화에 나타난 혐오감정의 두 양상, ‘식육-음식’ 짝패와 ‘성육-여성’ 짝패의 교차와 변주」, 『한민족어문학』 제79권, 한민족어문학회, 2018, 135-172쪽.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여성주의와 채식주의」, 『한국여성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여성철학회, 2011, 35-52쪽.

## Abstract

Women's Carnivorous Diets against Binary and Distorting Eco-Feminism  
-Analyzed through Raw(2016)

Lim Soyeon

Human beings eat to survive but also for pleasure. We occasionally share our days with supper. In terms of gender politics, however, an act of eating meat is rather exclusive to men, while excluding, marginalizing, or even 'animalizing' women. Ecofeminist, therefore, relate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o violence against animals, searching social structure beneath them to fight back. Still, this idea, as well as the old gender politics, risks polarizing and distorting reality. Namely, it may reinforce patriarchal discourse, tying vegetarianism up with femininity: weak, soft, conforming. As a result, femininity, along with vegetarianism, ends up to be a fringe.

Considerable amount of theoretical data and statements sees vegetarian diet as something feminine, consequently sets aside women who eat meat, and lets them be unaccountable. This paper aims to explore such omission by examining Raw(2016), a feature film presenting a female character who has been a vegetarian and soon turns out to be a cannibal,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How should we portray women having carnivorous diet? In the film, the character, who has been a vegetarian and an outcast, begins to eat meat and crave human flesh ever since she started to defy patriarchal norms and culture inside or outside of her school. It, hence, dismantled the former binary idea which tends to segregate women from carnivorous diets and refuted the way such idea represents them, as well as violence and regulations against them.

The text where we can unearth a novel insight into women's eating habits allows us to challenge long standing dynamics between gender politics and diets. It refuses to relate femininity to vegetarianism, labeling them as a fringe. It rather gives us an opportunity to elaborate on women and their carnivorous diets, deriving unorthodox discourses.

Key words: eco-feminism, female carnivorous diets, RAW, female cannibals

논문제출 / 2023. 06. 28.

논문접수 / 2023. 07. 23.

게재확정 / 2023. 08. 06.